

Ala-To, Kyrgyzstan, August 2017

두번의 키르기즈 방문과 두명의 놀라운 증인들

by 마이클

지난 여름 키르기즈스탄을 떠난 후에 그곳이 많이 그리운데, 다행히 2월과 8월 다시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파송회사의 여름 컨퍼런스 준비를 돕는 것이 주 목적이었는데 갑작스러운 상황의 변화로 인해 다음 해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탈라스와 비쉬켈에 있는 친구들과 이웃들 그리고 동역자들을 만나 교제할수 있었다는 것이 큰 기쁨과 축복이었습니다. 특히 탈라스에 있는 두 명의 현지인 사역자가 가정들로 인해 큰 격려를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이들과 동행하시며 축복을 주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수 있었습니다. 많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드러나는 동행과 축복이기에 더욱 커다란 울림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바이무랏 목사 가정은 가족의 건강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먼저는 몰도바의 기독교 대학에서 공부하는 큰 딸 아셀이 결핵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었고, 건강하던 큰 아들 티무르가 (소아)당뇨로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제가 방문했을 때, 바이무랏 목사가 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들이 기독교로 개종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며 이들의 마음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바이무랏 목사는 이러한 질병과 고난에 대하여 많은 신학적인 질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저에게 어떠한 '정확한' 답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가 듣고 믿었고 또 지금도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잔잔히 기억하고 신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바이무랏이 고난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성숙한 반응과 믿음에 놀라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신실한 종을 보호하시고 일으키시는 능력을 보여 주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들 목사 가정 또한 여전히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지난 2월 방문했을 때, 막 여섯째 아이(둘째 아들)를 낳았었는데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이번 8월에 다시 이들을 만났을 때, 아들과 아내 굴나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공급하심에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새로 갖게 된 몇 마리의 염소와 그들이 겨울을 날 수 있는 풀들, 매일



우리들이 남겨두고 온 비키와 새롭게 태어난 두 마리의 새끼들: 시큰둥한 비키와는 달리 마구 달려드는 새끼들을 보며 한국에서 온 할아버지를 알아본다고 바이무랏 목사가 말해 한참을 웃었습니다.

신선한 계란을 공급해 주고 있는 암닭들, 잠시 맡아 기르고 있는 소가 주는 우유, 고기를 위해 기르고 있는 토끼들과 작은 텃밭, 이런 모든 것들이 감사의 제물들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굴나라는 신앙적으로 위축된 모습을 보이며 여름성경학교로 어떤 친구도 초대하지 않는 큰 아들에(중학생) 대해 걱정하였습니다. 사실 큰 아들은 어려서부터 기독교인의 자녀로서 학교 친구들에게 폭력과 왕따를 당하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린 아들이 신앙을 지키기를 우선으로 염려하는 굴나라의 단순하지만 깊은 믿음의 모습을 통해 제 자신의 믿음이 너무 편한하고 편리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문득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눈발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눈발을 백 배난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막 10:29-30). 미국에서나 한국에서나 할 것 없이 우리는 ‘현재’ ‘이곳’에서 편안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반복적인 경고를 새기며, 사도 바울이 격려한 대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들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겠습니까 (빌 2:12).



바이무랏과 아이굴
비쉬켈로 가는 길에



아들과 굴나라
여섯 아이들중 세 명과 함께

지난 8월 GMTC에 합류한 후 가을과 봄 훈련을 한번씩 경험하고 나서 다시 가을 훈련을 시작하니 조금은 더 준비가 된 느낌입니다. 하지만 안식년 선교사들이 대부분인 가을 훈련생들과 있다보면 여전히 훈련자라기 보다는 그들과 같은 훈련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식년 선교사의 회복과 성찰 그리고 갱신을 주 목표로하고 있는 GMTC의 가을 프로그램은 장기 선교사로 헌신한 훈련생들을 대상으로하는 전반기 훈련과 여러모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월18일에서 6월8일까지 진행된 전반기 훈련에는 10쌍의 부부와 4명의 독신 선교사(후보생)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저는 세 가정, 여섯 명의 선교사들을 돕는 튜터로 섬겼습니다. 각 가정 모두 독특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도전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모두 긍정적인 훈련을 경험하고 마칠 수 있었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선교와 선교사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학습 뿐만이 아니라 적절하고 심도 깊은 상담을 통해 개인적인 문제들과 가정안의 관계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또한 선교사로서의 소명이 확인되어지고 열정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들이 성장하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그들의 비전이 구체화되는 것을 지켜보며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훈련에 함께 하시고 계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 8월 16일에 시작된 후반기 훈련(55기)에는 8쌍의 부부와 7명의 독신 경력 선교사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후반기 훈련의 정원인 25명의 선교사들이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하였는데 여름 초까지만 해도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정말로 은사들도 많고 훌륭한 선교사들을 많이 보내 주셔서, 한 가정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다음해 전반기로 훈련을 미루었음에도 불구하고, 23명의 훈련생들 그리고 5명의 자녀들이 함께 훈련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전반기와 마찬가지로 저는 5명의 선교사들을 튜터로 섬기게 됩니다. 모두가 40대이고, 결혼한 두 가정은 각각 두 아이를 두고 있습니다. 튜터로서의 역할 그리고 행정적인 책임과 더불어 “성경과 선교” 그리고 “교회와 세상”이라는 주제로 두 개의 선택강의를 계획하고 있고 (9/14-11/16), 그 외에 몇 개의 세미나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경건의 시간과 수요 예배를 통해 말씀을 전할 예정입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서도 훈련생들과 함께 배우며 하나님께서 새롭게 가르쳐 주실 것에 대해 기대해 봅니다.

또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GMTC에서의 사역에 더하여 몇 가지의 중요한 사역들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2월과 8월에 키르기스스탄을 방문할 수 있었고, 7월에는 일주간의 일정으로 말레이시아 페낭에 있는 말레이시아 침례신학교에서 진행된 선교학 박사과정 수업에 보조 강사로 참여하였습니다. 출석하고 있는 하.나.의.교회(www.hanau.net)에서도 설교 할 수 있는 몇 번의 기회를 주셔서 선교적인 메시지를 함께 나눌 수 있었던 것 또한 감사했습니다.

기도 제목

바이무랏/아들 가정

1. 바이무랏 목사 가정의 건강, 특히 바이무랏이 위암 수술을 잘 받고 회복되도록
2. 아들 가정의 재정적인 필요가 채워지고, 굴나라의 건강이 회복되도록

GMTC

1. 55기 훈련생들이 연합하여 좋은 공동체를 이루어 가도록/ • 훈련에 필요한 영육간의 건강과 지혜 그리고 인내심을 주시도록/ • 자녀들의 안전과 학업을 위해서/ • 교수, 행정, 어린이 학교 스태프들이 건강하고 성실하게 섬길 수 있도록/ • 9월11일—13일까지 속초에서 있을 수련회가 안전하고 즐겁게 이루어지도록
2. (마이클) 9월 한달 일정을 위해서:
 - 9월 14일 아침: 경건의 시간 인도/ • 9월 14일, 19일, 21일, 26일, 28일 오후: “성경과 선교” 선택 강의/ • 9월 20일 저녁: 수요예배 설교/
 - 튜터 그룹을 잘 섬길 수 있는 지혜와 겸손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 강의를 준비하고 실행하는데 필요한 통찰력과 끈기를 주시도록/

FAMILY

1. 섬머와 마이클이 더욱 일정하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함께 해 나갈수 있도록/
2. 정연이(대4)와 요한이(대2)가 안전하게 생활하고 친구들, 동료학생들과 좋은 관계를 갖도록/ • 고은이(고3)가 한국어 연수를 잘 받고 남은 한국 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 민우(고2)가 새로운 학교에서 적응을 잘하며 수업에 취미를 붙일 수 있도록/
3. 연로하신 부모님들께서 영육간에 강건하셔서 노후를 편안하게 지내시는 은혜가 있도록



54기 졸업식 날 튜터그룹에 속했던 장 '의사' 선교사 부부와 함께



말레이시아 침례신학교 강의 중 총장님, 교수들, 학생들과 함께 한 컷



55기 훈련생들과 함께 용왕산 산책 중에

시부모님

올 해 저희들은 두 차례에 걸쳐 미국에 있는 가족들의 방문을 받아 큰 격려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3월에 3주간의 일정으로 저희들을 찾아 주신 시부모님들의 방문이었습니다. 미국에 갈 때마다 부모님 댁에 머물며 대접을 받았었는데 이번에는 역할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으로 시부모님들이 손님들이셨고 저희들이 주인이었습니다. 부모님들은 받으시는 입장에 계셨고 저희들이 주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목동 산동네에 위치한 저희들의 집 옆에는 자그마한 산(용왕산)이 있는데, 산에는 운동기구들이 즐비한 여러 개의 산책로들이 있고, 한강과 서울 시내를 내려다 볼 수 있는 정자(용왕정)가 있는 정상 부근에는 축구장과 공연무대 그리고 더 많은 운동기구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시부모님들은 매일 아침, 그리고 때로는 아침 저녁으로, 산책을 즐기셨습니다. 어느 아침, 시어머님께서 운동을 마치고 돌아오셔서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침 운동을 마치고 와서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는 상을 대하니 정말 좋구나!" 저희들이 어머님께 머물 때마다 어머님께서 얼마나 많이 섬겨 주셨는지를 알기에, 저는 감사의 웃음으로 화답하였습니다.

키르기즈스탄에 있을 때 한번은 미국에서 오신 한 노선교사님께서 자신이 과거에 가졌던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회상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먼저 다가가 자신의 75%를 주어야하고,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25%를 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제가 시어머니와 가졌던 관계를 생각해 보니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사실로 느껴집니다. 시어머님께서 항상 제가 할 수 있었던 것보다 많이 우리들을 섬기시고 다가오셨습니다. 지난 오랜 세월동안 저희들에게 얼마나 많은 선물들을 주시고 재정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으셨는지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랜 세월 감당해오신 희생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대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저희들 모두 안에 부모님들을 향한 엄청난 양의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스며들게 하였습니다. 저도 한 사람의 부모로서, 부모가 남길 수 있는 유산들 중에 이 보다 더 큰 것은 없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연이와 요한이

5월에는 세 달여의 여름방학을 맞아 첫째 정연이와 둘째 요한이가 저희들에게 왔습니다. 일 년을 못 본 후에 아이들을 안고 뵈뵈해주는 것이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와 스마트폰 앞에서 넷을 잃고 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아이들을 보고 있자니 기쁨은 순식간에 짜증으로 바뀌었습니다. 허구한 날... 세 달 동안... 두 아이들은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 저는 혀를 깨물고 가능한 한 말을 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래 두 아이들은 여전히 고등학생들이기에 경계들을 세워줄 필요가 있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꼈사! 루틴과 구조를 주기 위한 저의 모든 시도들은 저를 향한 아이들의 웅어리와 원망의 저수지를 크게만 할 뿐이었습니다. 두어 해 전 둘째인 요한이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저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었을 때, 아주 심하게 어려운 아이들을 가진 부모들을 위한 인터넷 포럼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마약과 범죄에 연루된 아이들로 인하여 서로를 위로하며 지지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들을 읽은 후에 저는 제 아이들이 얼마나 좋은 아이들인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가장 나쁜 짓은 집에만 너무 많이 있으면서 인터넷에 너무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비교적 착하고 저희들로 하여금 어떤 심각한 슬픔도 경험하지 않게 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아이들이 쓸수있는 모든 시간을 컴퓨터와 스마트폰에 사용하도록 놔 두어야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겠지요?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함으로 인해 나타나는 반발들과 어려운 상황들을 대신할 수 있는, 아이들이 흥미로워하는 활동들이나 어울리는 친구들이 많지 않을 때 부모가 할 수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 끝까지 인내하며 사랑할 수 있는 엄마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산정호수를 걷고 있는 시부모님과 누님: 마이클은 부모님들과 누님을 모시고 1박2일의 일정으로 고향지역을 함께 돌아 보았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참으로 즐겁고 기억에 남을 의미있는 마지막 고향 여행이 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탈라스에서 함께 생활했던 이육세, 박래민 선생님 가족들과의 즐거운 만남



파송회사 유라 그리고 지영 자매와 함께 하.나.의.교회 주일 예배후



엄마와 아들 강화도 옆의 교동도를 방문하여